

제목 Theme: 두 주인 Two Lord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6:24-34 절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at they do not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worth much more than they?**"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And who of you by being worried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And why are you worried about clothing? Observ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toil nor do they spin,**"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yet I say to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clothed himself like one of these.**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urnac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You of little faith!**"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Do not worry then, saying, 'What will we eat?' or 'What will we drink?' or 'What will we wear for clothing?'**"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For the Gentiles eagerly seek all these things;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성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24 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다른 하나는 섬기는 그 일을 돋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은 모두 이 내용을 실천하며 살았고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특히 재물(**WEALTH**)는 단순히 물질뿐 아니라 가치가 되는 재물, 재산, 명예 등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돋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원리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치를 기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따르고 그것 때문에 일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 가치와 기준 그리고 추종하는 생활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5** 절부터 **30** 절까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시고 있습니다.

25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목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깊은 내용 속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제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이 아닌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즉 영생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 17** 장에서 엘리야와 시돈지방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와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를 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지방 사르밧 동네에 들어가니 성문 곁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구한 뒤에 떡을 한 조각 구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남아 있는 음식은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성문 곁에 나무 가지를 줍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마지막 환경인 것입니다. 그 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는 현실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현실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하는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항상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재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족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잘난체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사 또는 사역자들은 위대한 사람처럼 속이고, 교만하여 서기관과 같은 목사 또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즉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종처럼 만족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고 무서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인들의 나라 즉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에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어떤 유품이 와도 하나님이 없는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33 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과 사람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되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24 절)

1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 있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야고보서 2:22 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 재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바벨탑입니다 - 잠언 11:4 절 “재물은 진노(심판)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믿음)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3.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는 도구로 주십니다 - 히브리서 6:3 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둘째,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2 절)

1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 요한 1 서 4:15 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2.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영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 요한복음 3:15 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 베드로전서 1:15-16 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셋째,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3 절)

1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복음입니다 - 로마서 1:17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합니다 - 갈라디아서 5:5 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3.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야고보서 5:15 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라